

화학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간경변, 간신증후군

성별	남성	나이	만 56세	직종	화학공장 근로자	직업관련성	높음
----	----	----	-------	----	----------	-------	----

1 개 요

근로자 망 ○○○은 1987년 4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PVC 생산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 유족은 2019년 4월 □사업장의 공정폐쇄와 그로 인한 임금삭감과 배치전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019년 6월 23일부터 ‘음식물을 넘기기 힘들다’면서 술은 물론이고 음식물 섭취도 하지 못하였다. 2019년 6월 25일 오전 스스로 A종합병원에 내원했고 응급실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의식을 잃었고 기관삽관 시행하였으며, B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았지만 2019년 6월 26일 오전에 사망하였다. 진단명은 간경변, 간신증후군이고 선행사인은 간부전, 중간 선행사인은 급성 신부전, 직접사인 다장기부전이였다. 근로자 유족은 근로자가 약 32년간 PVC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염화비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고, 2019년 4월 작업공정 폐쇄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 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 망 ○○○은 만 24세였던 1987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32년 2개월간 □사업장에서 PVC 생산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근로자는 paste PVC를 생산하는 PT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근로자가 근무한 곳은 조정실, 반응(중합)공정, 건조 공정이었다. 2010년 10월 근로자가 근무하던 공정이 폐쇄되어 다른 부서에 배치되었다. 해당 공정은 근로자 발병 전 2019년 4월 폐쇄되었다. 동료근로자는 근로자가 과거에도 다른 공정으로 전환 배치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의 유족은 □사업장의 공정폐쇄와 그로 인한 임금삭감과 배치전환으로 인해 후배들에게 업무를 배워야 하는 상황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 질환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휴가기간인 2019년 6월 17일부터 2019년 6월 22일경까지 약 6일간 하루에 소주 2병 가량을 마셨는데 2019년 6월 23일부터는 ‘음식물을 넘기기 힘들다’면서 술은 물론이고 음식물 섭취도 하지 못하였다. 출근 예정일인 2019년 6월 25일 오전 근로자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노랗게 된 상태에서 식은 땀을 흘리며 아내에게 ‘목이 아프고 힘이 없다, 병원에 가자’고 하여 A종합병원에 갔는데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line을 스스로 제거하였으며 응급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증상을 보였다. 이후 의식을 잃었고(mental drowsy) 기관삽관(intubation) 시행하였으며, B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았지만 진단명은 간경변, 간신증후군이고 선행사인은 간부전(차일드 등급 “C”), 중간 선행사인은 급성 신부전, 직접사인 다장기부전으로 만 56세가 되던 2019년 6월 26일 오전 사망하였다. B대학병원의 의무기록과 동료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는 2008년 간농양으로 입원치료 받았다. 근로자는 2009년 9월부터 위궤양으로 3회 수진하였다. 근로자는 2010년과 2011년에 C종합병원에서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간질환(K712)와 담즙정체를 동반한 독성간질환(K710)등으로 수진 기록이 있었다. 근로자는 2018년 건강진단 문진에서 현재흡연자로 25년간 하루 15개비를 흡연하였고, 1주일에 2-3회 소주 1병의 음주력이 있었다. 2015년 건강진단에서 γ GTP는 147 mg/dl(참고치 63 mg/dl 이하)로 상승된 적 있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망 ○○○(남, 1963년생)은 만 56세가 되던 2019년 6월 26일 사망하였다. 진단명은 간경변, 간신증후군이고 선행사인은 간부전, 중간 선행사인은 급성신부전, 직접사인은 다장기부전이였다. 근로자는 1987년 4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PVC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유해 요인으로는 염화비닐(VCM)과 음주 등이 알려져 있다. 근로자는 작업 중 높은 수준의 염화비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염화비닐과 음주는 상승효과를 일으켜 간경변 및 간신증후군의 위험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끝.